

네코즈카 (猫塚) 고분 · 네코즈카키타 (猫塚北) 1 호관

특별사적 헤이조쿄 (平城宮) 북쪽에 쇼린엔 (松林苑) 터가 있다. 「속일본기 (續日本紀)」에 천평원년 (天平元年) (729) 3 월 3 일, 쇼무텐노 (聖武天皇) 가 쇼린엔에 군신을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사가 처음으로 나오고 이후에 여러 번 향연이 개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쇼린엔은 시오즈카 (塩塚) 고분 · 오세야마 (オセ山) 고분 · 고나베 (コナベ) 고분 등 4 세기 후반 ~5 세기 대에 축조된 사키 (佐紀) 고분군 서군 (西群)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외주 (外周) 는 축지담 (築地塀) 으로 둘러싸여 있다.

네코즈카고분은 분구 길이 120m 정도의 전방후원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쇼린엔의 남쪽 축지에 부딪혀 고분이 크게 변경되고 있다. 1953 년 토사 채취 공사에 수반해서 긴급 조사가 시행되었는데 매장시설은 전체 길이 4.6m, 폭 1.28m 인 수혈식석실로 할죽형목관을 안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팔찌 (石釧) 21 점, 직도 (直刀) 8 점, 단검 (鎗先) 22 점이 출토되었고 출토품은 나라국립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이 외에 거울 (神人車馬画像鏡), 쇠칼, 차륜석, 벽옥제 대롱옥, 비취제 곱은옥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게다가 1983 년에 고분 북쪽의 밭굴이 이루어져 점토곽이 조사되었다 (네코즈카키타 1 호관) . 고분 북쪽 외제 (外堤) 위에 매장된 관, 혹은 딸린무덤 (陪塚) 의 성격을 지닌 고분 매장시설로 생각된다. 점토곽에서는 팔찌형 석제품 (腕輪形石製品), 합 (合子), 대롱옥, 곱은옥이 출토되었다. 팔찌형 석제품은 제각기 형태가 다른 차륜석 5 점, 돌팔찌 6 점이 출토되었고 돌팔찌에는 활석제 3 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한 점에는 거치문 (鋸齒文) 이 양면에 새겨져 있어 원형의 조개팔찌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문양을 새기고 있다.

네코즈카고분과 네코즈카키타 1 호관은 고분시대 전기 후반대의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네코즈카고분은 사키고분군 안에서는 비교적 빠른 단계에 축조된 중간 규모의 전방후원분으로 보이고, 동시기로 추정되는 분구 길이 200m 이상의 대형 전방후원분인 사키미사사기야마 (佐紀陵山) 고분이나 사키이시즈카야마 (佐紀石塚山) 고분과의 관계가 주목된다. 게다가 네코즈카고분에서 보면 종속적 위치에 있는 네코즈카키타 1 호관에 풍부한 부장품이 매납된 점에서 이 양자와의 관계도 주목된다.